

기술분석보고서 IT

유비씨(49581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씨(495810)

AI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제조 현장의 자율화와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는 기업

기업정보(2026.06.16 기준)

| | |
|------|---------------------------|
| 대표자 | 조규종 |
| 설립일자 | 2010년 4월 30일 |
| 상장일자 | 2024년 12월 23일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업종분류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주요제품 | 디지털 트윈 플랫폼 (OCTOPUS) 등 |

시세정보(2026.06.16 기준)

| | |
|------------|------------|
| 현재가(원) | 13,120 |
| 액면가(원) | 100 |
| 시가총액(억 원) | 328 |
| 발행주식수 | 2,500,000주 |
| 52주 최고가(원) | 13,120 |
| 52주 최저가(원) | 13,120 |
| 외국인지분율 | - |
| 주요주주 | 조규종 외 5인 |

■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구축형 프로젝트에서 SaaS형 자율제조 솔루션으로 확장 시도 중

유비씨(이하, 동사)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으로, 제조·조선·자동차·이차전지·물류·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분석·관제·3D 가상화·시뮬레이션·AI 제어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기업 대상 프로젝트형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다. 구축형 레퍼런스를 반복 매출과 글로벌·중소 제조 시장으로 확장하는 속도에 향후 성장성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조·물류·에너지 인프라의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고진입장벽 시장

목표시장은 현실의 설비·공정·로봇·물류·에너지 인프라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뮬레이션·예지보전·AI 제어를 지원하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제조·이차전지·조선 등 운영 복잡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시장은 데이터 수집, 산업 통신, 엣지 처리, 3D 모델링, AI 분석, 관제·제어 기능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다. 다만 고객 맞춤형 구축 부담, 높은 기술 진입장벽, 글로벌 대형 플랫폼 기업과 경쟁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

■ OCTOPUS 중심의 AI 자율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

동사는 산업 데이터 수집·분석·관제·3D 가상화·시뮬레이션·예지보전·AI 기반 의사결정과 제어를 통합 제공하는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gentic AI, Physical AI, Robot Hub 등 자율제조 관련 기능을 확대하며 제조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복잡한 공정과 설비 운영이 필요한 산업에서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향후 성장성은 OCTOPUS(옥토퍼스) 플랫폼의 모듈화·표준화, SaaS 구독형 모델 안착, 해외 및 중견·중소 제조기업 고객 확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별도 기준)

| | 매출액 (억 원) | 증감 (%) | 영업이익 (억 원) | 이익률 (%) | 순이익 (억 원) | 이익률 (%) | ROE (%) | ROA (%) | 부채비율 (%) | EPS (원) | BPS (원) | PER (배) | PBR (배) |
|------|--------------|-----------|---------------|------------|--------------|------------|------------|------------|-------------|------------|------------|------------|------------|
| 2023 | 39.2 | 35.5 | -12.1 | -31.0 | -11.9 | -30.4 | N/A | N/A | 1,206.2 | -451 | 110 | N/A | N/A |
| 2024 | 52.2 | 33.3 | -20.0 | -38.3 | -21.4 | -40.9 | -690.5 | -53.8 | 1,162.9 | -767 | 111 | N/A | 117.9 |
| 2025 | 35.9 | -31.3 | -38.9 | -108.6 | -40.1 | -111.8 | -485.2 | -101.2 | 185.7 | -1,255 | 357 | N/A | 36.7 |

기업경쟁력

| | |
|---------------------------|---|
| 산업 현장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의 제조·인프라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별 설비 구조와 운영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반 |
| 플랫폼 전환을 지향하는 사업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구축형 프로젝트 기반 사업을 전개하면서, 1차 협력사 대상 통합 플랫폼과 중소기업 대상 SaaS 구독형 서비스로 확장하는 단계적 사업모델 추진 |
|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내재화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중심 조직을 기반으로 OPC UA, CPS,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AI 원격협업 등 관련 특허와 인증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추진 |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 | |
|--------------------------|---|
| OCTOPUS 기반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CTOPUS는 산업 데이터 수집, 3D 가상화, 시뮬레이션, AI 분석, 관제·제어 기능을 통합하여, 제조공정·물류·로봇·에너지 설비의 운영 최적화에 적용 |
| 표준 기반 이기종 설비 연동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허브 및 엣지 기술은 다양한 제조 설비와 제어 시스템을 표준 통신 기반으로 연결해 디지털 트윈 구현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통합을 지원 |
| 시뮬레이션 및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CTOPUS Simulator, AI Hub, Agentic AI, Physical AI 등은 공정 병목 분석, 가상 검증, 이상 감지, 로봇 제어 검증 등 자율제조 고도화 영역에 적용되는 핵심 제품군 |

시장경쟁력

| | |
|-----------------------|--|
| 제조 AX 전환 수요와의 높은 연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은 제조업의 AI 전환, 스마트공장 고도화, 로봇·물류 자동화 확산과 직접 연결되고, 동사의 플랫폼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포지셔닝 |
| 대기업·공공기관 레퍼런스 기반의 신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제조 현장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고객 영업 시 기술 검증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레퍼런스 기반 경쟁력 확보 |
| 국내 제조 현장 맞춤형 대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대형 플랫폼 기업과 비교할 때 국내 제조 현장의 설비 환경, 고객 요구사항, 구축 속도, 맞춤형 기능 개발 측면에서 차별화 여지를 확보 |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의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 | | | |
|--|--|--|--|
|  |  |  |  |
| 가치(Value) | 희소성(Rarity) | 모방가능성(Imitability) | 조직(Organizatio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현장의 데이터 통합, 3D 관제, 시뮬레이션, AI 분석, 로봇 연동을 통해 공정 최적화와 자율제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기종 설비 연동, 3D 시뮬레이션, Agentic AI 확장 기능을 플랫폼으로 구현하고 대기업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확보한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희소성을 갖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기업도 진입 가능하나, 산업별 데이터 구조 이해, 구축 경험, 특허·인증 등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축적형 자산으로 판단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중심 인력 구조, 지식재산권 및 인증 기반, 구축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유 기술을 사업화할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

I. 기업 현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구축형 프로젝트에서 SaaS형 자율제조 솔루션으로 확장 시도 중

동사는 202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AI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으로, 제조·조선·자동차·이차전지·물류·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분석·관제·3D 가상화·시뮬레이션·AI 제어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매출의 대부분은 기업 대상 On-Premise DT 구축에서 발생해 프로젝트형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다. 구축형 레퍼런스를 SaaS 기반 반복 매출과 글로벌·중소 제조 시장으로 확장하는 속도에 향후 성장성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0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4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다. 설립 초기 3D 기반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였으나, 2016년 조규중 대표이사의 인수창업을 계기로 CPS(Cyber-Physical Systems, 가상물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 분석, 통합, 관제, 3D 가상화, 시뮬레이션, 검증, 예지보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AI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으로 사업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제조·조선·자동차·이차전지·물류·에너지 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I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을 개발·공급하는 것이다. 주요 수익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On-Premise DT 구축 프로젝트, 협력사 대상 통합 플랫폼 라이선스, 중소기업 대상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구독형 플랫폼 제공에서 발생한다. 주요 제품은 OCTOPUS 플랫폼으로, OCTOPUS Simulator, OCTOPUS AI Hub, OCTOPUS Data Hub, OCTOPUS Agentic AI, OCTOPUS Physical AI, OCTOPUS Twin, OCTOPUS Edge, OCTOPUS Robot Hub 8개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OCTOPUS는 산업 현장의 이기종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상 환경에서 공정과 물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며, AI 기반 판단과 제어를 지원한다. 적용 산업은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제조 현장과 공공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고객군은 디지털 전환과 자율제조 도입 필요성이 높은 제조 대기업, 공공기관, 산업 자동화 수요 기업으로 정리된다.

제품 개발 및 공급은 소프트웨어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하며, 연구소 외 별도의 생산시설이나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는 설비투자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고급 개발인력 확보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사업 확장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국제

표준 기반의 설비 연결 기술, 실시간 3D 관제, 시뮬레이션, AI 판단 모델 연계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구축형 사업에서 SaaS 기반 반복 매출 구조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제조 현장과 중소기업 시장으로 성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 연월 | 내용 |
|---------|---|
| 2010.04 | 법인 설립 |
| 2022.03 |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 메타팩토리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수주 |
| 2022.12 | 디지털 트윈 솔루션 Flexing CPS 조달청 혁신 제품 선정 |
| 2023.06 | 2023 Unity MWU 코리아 어워드 Best Immersive 부문 수상 |
| 2023.08 | (주)유진로봇 MOU(디지털 트윈 솔루션 공급 협력) 체결 |
| 2024.04 | 현대위아 물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수행 |
| 2024.08 | 삼성SDI(주) 디지털트윈 사업 수주 |
| 2024.12 | 코넥스 시장 상장 |
| 2025.08 | AI 팩토리 전문기업 인증 |
| 2025.12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인증(옥토퍼스 허브 V1.0)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주 현황

2025년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조규종으로, 보통주 발행주식(2,500,000주) 중 2,334,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93.3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송영빈 외 4인의 특수관계자가 37,900주(1.52%)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보통주의 지분을 합계는 94.88%이다. 나머지 128,100주(5.12%)의 보통주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코넥스 상장 이후 성장자금 조달과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및 투자조합의 자본을 유치해 온 결과, 우선주가 1,206,843주 발행되어 있어 향후 전환 여부에 따라 보통주 기준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

동사의 지배구조는 대표이사의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안정성과 벤처·스케일업 투자조합의 성장자본 참여가 병존하는 형태다. 이는 장기 기술개발과 플랫폼 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동시에 소수주주 유동성, 우선주 전환 가능성, 코넥스 시장 내 낮은 거래 활성도는 투자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관계 |
|----------|-----------|---------|-------|
| 조규종 | 2,334,000 | 93.36% | 최대주주 |
| 송영빈 외 4인 | 37,900 | 1.52% | 특수관계인 |
| 기타 주주 | 128,100 | 5.12% | |
| 합계 | 2,500,000 | 100.00% |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공급, SaaS 기반 구독형 플랫폼 제공으로 구분된다. 핵심 사업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On-Premise DT 구축 사업이며, 2025년 기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사업은 고객의 제조공정, 설비, 물류, 로봇, 에너지 인프라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실제 데이터와 연동해 관제·분석·검증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다.

솔루션 및 기타 제품군은 보조 사업에 해당한다. 솔루션 사업은 제조실행시스템, 설비 연동, 데이터 수집, 산업용 컴퓨터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트윈 구현에 필요한 주변 기능을 포함한다. 기타 제품군은 교육 키트, 엣지 장비, 산업용 하드웨어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보완재 성격을 가진다. SaaS DT는 아직 매출 비중이 2.5%로 작지만,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반복 매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다.

OCTOPUS 플랫폼 내 각 솔루션은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ata Hub는 산업 데이터를 수집·정제하고, Twin은 설비·물류·로봇 상태를 3D로 관제하며, Simulator는 가상 환경에서 공정 시나리오와 병목을 검증한다. AI Hub와 Agentic AI는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자동화를 지원하고, Physical AI와 Robot Hub는 로봇 제어 및 자율제조 영역으로의 확장을 담당한다. 이 구조는 플랫폼 통합 공급에 가까우며,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 단계가 높아질수록 추가 모듈과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현재 구축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 기반을 형성하되, 통합 플랫폼 라이선스와 SaaS 구독형 서비스로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프로젝트 수주와 납품 실적이 실적 변동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OCTOPUS 플랫폼의 표준화, 모듈화, 클라우드 전환 여부가 수익성 개선과 반복 매출 확보의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 구분 | 2023년 | 비중 | 2024년 | 비중 | 2025년 | 비중 |
|---------------|-------|--------|-------|--------|-------|--------|
| On-Premise DT | 20.5 | 52.3% | 36.5 | 69.9% | 25.4 | 70.8% |
| 솔루션 | 12.9 | 32.9% | 11.8 | 22.6% | 6.4 | 17.8% |
| SaaS DT | 0.5 | 1.3% | 0.6 | 1.2% | 0.9 | 2.5% |
| 기타 | 5.3 | 13.5% | 3.3 | 6.3% | 3.2 | 8.9% |
| 매출 합계 | 39.2 | 100.0% | 52.2 | 100.0% | 35.9 | 100.0%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영업 방식은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보다 기술 기반 프로젝트형 영업에 가깝다. 고객사의 생산공정, 설비 구성, 데이터 구조, 로봇·물류 시스템, 기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장치) 환경을 분석한 뒤 맞춤형 구축 범위와 플랫폼 적용 방식을 제안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영업 과정은 단순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검증,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 레퍼런스 확보, 유지보수 계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025년 기준 판매경로별 매출은 국내 일반기업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수출 일반기업체 매출이 발생 하고있다. 과거 한국전력공사 디지털 트윈 구축 실적 등 공공 프로젝트 경험은 기술 신뢰도와 레퍼런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고객군은 생산라인 운영 효율화, 물류 자동화, 설비 예지보전, 해외 공장 관제, 로봇 통합 제어가 필요한 제조 대기업 및 산업 인프라 운영기관이다.

프로젝트 수주 후 설계·개발·구현 용역 매출을 인식하고, 이후 유지보수·기술지원·기능 확장으로 후속 매출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025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7.8억 원으로 확인되며, On-Premise DT와 SaaS DT 계약이 혼재되어 있어 구축형 매출에 의존하면서도 구독형 서비스 전환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 전략은 OPC UA 국제 표준 기반의 이기종 설비 연결, 3D 시뮬레이션, AI 기반 병목 분석, 로봇 통합 관제, Agentic AI 및 Physical AI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다만 디지털 트윈 시장은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자동화 장비 기업, 클라우드 기업도 진입하는 영역이므로, 특정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구축 경험과 국내 제조 고객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사의 판매전략은 대기업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를 1차 협력사 및 중소기업 SaaS 시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사업모델과 연결되어 있다.

II. 시장 동향

제조·물류·에너지 인프라의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고진입장벽 시장

목표시장은 현실의 설비·공정·로봇·물류·에너지 인프라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뮬레이션·예지보전·AI 제어를 지원하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제조·이차전지·조선·물류·에너지 등 운영 복잡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시장은 데이터 수집, 산업 통신, 엣지 처리, 3D 모델링, AI 분석, 관제·제어 기능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다. 다만 고객별 맞춤형 구축 부담, 높은 기술 진입장벽, 글로벌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 시장은 현실의 설비, 공정, 로봇, 물류, 에너지 인프라 등 물리적 자산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시뮬레이션하여 운영 최적화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으로 정의된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은 제품·기술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 계층, 산업 통신 및 엣지 계층, 3D 모델링·시뮬레이션 계층, AI 분석 계층, 관제·제어 계층이 결합된 복합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초기 디지털 트윈이 설비 상태를 시각화하거나 공정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에 집중했다면, 최근 시장은 공정 시나리오 검증, 병목 분석, 예측 유지보수, 로봇·물류 최적화, AI 기반 자율 의사결정까지 포괄하는 플랫폼형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솔루션보다는 데이터 연동, 시뮬레이션, AI 모델 관리, 로봇 관제, 현장 제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방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이다.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기계, 물류 자동화, 에너지 설비 등은 생산설비와 운영 데이터가 복잡하고, 설비 중단이나 공정 오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 도입 유인이 높다. 제조기업은 신규 공장 구축 전 가상 검증을 통해 설계 오류와 병목을 사전에 줄이고, 운영 단계에서는 설비 상태와 생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는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이동로봇),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차),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자동창고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를 통합 관제하고 동선을 최적화하는 수요가 발생한다. 에너지 및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는 송배전·발전 설비의 이상 감지, 안전 예측, 원격 관제 수요가 시장 형성의 기반이 된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은 비교적 높다. 산업 현장은 설비 제조사, 통신 프로토콜, PLC, MES,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등 시스템 구성이 고객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 연동 기술과 현장 구축 경험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OPC UA와 같은 산업 통신 표준, 실시간 데이터 처리, 3D 시뮬레이션, AI 모델 운영, 보안 및 고가용성 설계는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또한 한번 고객 현장에 깊이 통합된 플랫폼은 유지보수, 기능 확장, 추가 모듈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객 잠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 및 수익 구조는 구축형과 플랫폼형이 혼재되어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초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개발비, 라이선스, 시스템 통합 용역, 유지보수 매출이 주요 수익원인 반면, 시장이 성숙할수록 클라우드 기반 구독료, 모듈별 라이선스, 데이터 분석 기능 과금, AI 모델 운영 서비스 등 반복 매출형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단기 수주 규모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구축 경험을 표준화된 플랫폼과 SaaS형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기술 측면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AI의 결합이 핵심 변화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설비를 가상공간에 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AI가 공정 데이터를 학습해 병목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하며, 작업 시나리오를 자동 추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언어모델),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Agentic AI, Physical AI 등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활용 범위를 자율 의사결정과 로봇 제어 검증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단순 관제 도구에서 자율제조 실행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의 결합도 중요한 시장 트렌드다. 대기업 고객은 보안과 성능을 고려해 온프레미스 기반 구축형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SaaS 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제조 현장은 데이터 지연 방지 및 설비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엣지 단에서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하고, 클라우드 또는 중앙 플랫폼에서 분석·시뮬레이션·AI 모델을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구조에서는 산업용 통신 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실시간 처리 성능, 보안 체계가 플랫폼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된다.

한편, 제조 AX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AI 팩토리,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 데이터 활용, 로봇·물류 자동화와 연계된 디지털 트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AI 전환을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증사업과 공공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25년 211.4억 달러에서 2030년 1,498.1억 달러로 연평균 47.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24년 2.8억 달러에서 연평균 45.5%로 성장하여 2029년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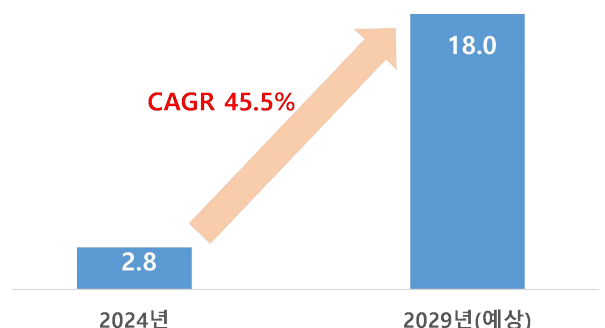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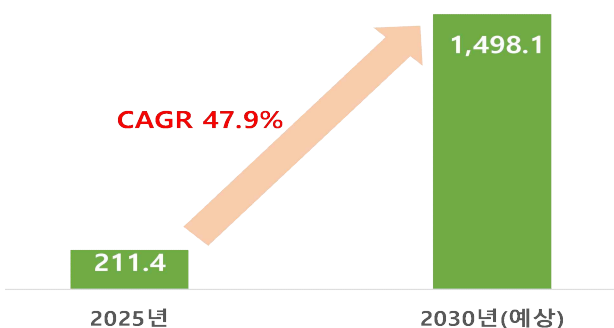
다만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고객 현장에 깊이 통합되는 특성상 구축 기간이 길고, 고객별 요구사항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다. 초기 프로젝트는 매출 규모가 크지만 인력 투입과 맞춤형 개발 부담이 높아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고, 프로젝트 납기 지연이나 고객 투자 축소가 실적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대형 기업은 산업 자동화, PLM, AI 분석 도구를 결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중소형 전문기업은 특정 산업 레퍼런스와 현장 적용 속도, 가격 경쟁력, 고객 맞춤형 대응 역량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의 확대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적 안정성은 수주 확대뿐 아니라 플랫폼 표준화, SaaS 전환, 해외 및 중소 제조 고객 확장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디지털 트윈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Markets and Markets,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AI 디지털 트윈 핵심기술과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율제조 플랫폼 표준화·SaaS화 추진 중

동사는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I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산업 현장의 설비·로봇·물류·공정 데이터를 수집·통합해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AI를 통해 예지보전, 공정 최적화,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OPC UA 기반 이기종 설비 연동, 클라우드형 플랫폼, Agentic AI 등 자율제조 확장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핵심 기술 관련 특허와 GS 1등급 및 혁신제품 인증 등을 확보해 기술 신뢰성과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I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기술이다. 산업 현장의 설비, 로봇, 물류, 공정 데이터를 수집·통합하고 이를 3D 가상공간에 실시간으로 복제한 뒤, 시뮬레이션과 AI 분석을 통해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운영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특정 설비 제어 또는 생산관리 기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동사의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가상화, 분석, 예측, 제어, 협업 기능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통합형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동사의 OCTOPUS 플랫폼은 8개 전문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OCTOPUS Simulator는 공정 및 물류 흐름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하고 What-if 시뮬레이션과 AI 기반 병목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OCTOPUS Twin은 설비와 로봇의 상태를 실시간 3D로 관제하고, 과거 운영 이력을 재현해 문제 원인 분석을 지원한다. OCTOPUS Data Hub와 Edge는 현장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집·전처리·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AI Hub와 Agentic AI는 데이터 기반 모델 생성, 운영 맥락 분석, 의사결정 자동화 기능을 담당한다.

동사의 기술적 기반은 OPC UA 기반의 이기종 설비 연동 역량이다. 제조 현장은 설비 제조사, 통신 방식, 제어 시스템이 상이해 데이터 통합 난도가 높는데, OPC UA 기반 통신 표준화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실제 공정 데이터와 지속적으로 동기화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며, 고객 맞춤형 구축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SaaS 기반 플랫폼 확장에도 중요한 기반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특징점은 AI와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자율제조 확장성이다. 단순히 공장 현황을 시각화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 조건 변경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사전에 검증하고, 병목 구간을 분석하며, AI 판단 모델을 통해 제어·알람·보고 자동화를 추진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Physical AI 영역에서는 실제 설비와 로봇의 물리 환경을 가상공간에 복제하고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 로봇 제어 및 가상 검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조 현장의 AX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다.

[그림 3] 동사의 이기종 기계 연결·연동 기술과 OCTOPUS 플랫폼 도입 효과



자료: 동사 IR자료(2025.11),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활동은 디지털 트윈 구현 기술을 자율제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당사는 CPS, 산업 데이터 통합, OPC UA 기반 설비 연동, 시뮬레이션, AI 분석, 로봇 관제 기술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장하였고, 최근 제조 현장의 데이터 수집부터 AI 기반 의사결정 및 제어까지 연결하는 Full Cycle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동사의 연구개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OCTOPUS Data Hub와 Edge를 중심으로 이기종 설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레이크와 ETL(Extract, Transform, Load, 추출·변환·적재) 프로세스를 통해 AI 학습 및 관제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는 산업 데이터 통합 및 설비 연결 기술 고도화다. 둘째, 시뮬레이션 및 가상 검증 기술 개발이다. 제조 공정과 물류 흐름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하고, 실제 생산 중단 없이 병목과 운영 조건을 검증하는 기능은 동사의 프로젝트 수행 경쟁력과 직접 연결된다. 셋째, No-Code AI 모델 생성, LLM·RAG 기반 운영 맥락 분석, 강화학습 기반 로봇 제어, 합성 데이터 생성 등을 포함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개발이다.

동사는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물류, 에너지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장 요구사항을 제품 기능으로 반영하고, 고객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이는 연구개발 결과가 상용 프로젝트에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고객 맞춤형 개발 비중이 높아질 경우 범용 플랫폼화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의 핵심 과제는 프로젝트별 기능을 공통 모듈로 정리하고, 이를 SaaS 기반 구독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편, IP-R&D 전략지원 사업, 디지털 트윈 솔루션 해외진출 지원사업, G-Next 사업, AI 팩토리 관련 인증 및 전시 활동 등 정부·공공 지원사업과 외부 기술사업화 프로그램도 연구개발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CPS 및 스마트팩토리 기반기술, OPC UA 기반 설비 연동 기술, 클라우드형 플랫폼 기술, AI·원격협업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CPS 시스템, CPS 객체 모델링 시스템, 중앙 OPC-UA 서버를 이용한 가상 물리 생산 시스템 및 방법, 중앙 OPC UA 모델링을 통한 CPPS 자동 구축 시스템 등 CPS 관련 특허는 제조 현장의 설비와 데이터 구조를 가상 물리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모델링·연동·제어하는 기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이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3D 시각화가 아닌 실제 산업 데이터와 연결된 운영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로 판단된다.

최근 등록된 OPC UA 프로토콜 기반 이기종 장비 간 인터페이스 연동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제공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음성인식 원격 협업 방법, 디지털 트윈 기반의 원격 협업 서비스 제공 장치 특허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성을 강화하고, SaaS형 플랫폼 전환의 기반이 되며, 현장과 원격 운영자 간 협업 효율을 높이는 등 AI 기반 현장 협업 및 이기종 설비 연동 분야로 기술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사가 획득한 각종 인증은 제품 신뢰성과 공공·제조 시장 진입 기반을 보장하는 요소이다. 당사는 FLEXING CPS SERVER v1.0 및 OCTOPUS Hub V1.0에 대해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확보했으며, FLEXING EDUKIT과 FLEXING Edge Mobile에 대해 KC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교육 장비와 국제 표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FLEXING 가상물리시스템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 및 실증 확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도 확보하고 있어 SaaS 기반 플랫폼 사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일부 갖추고 있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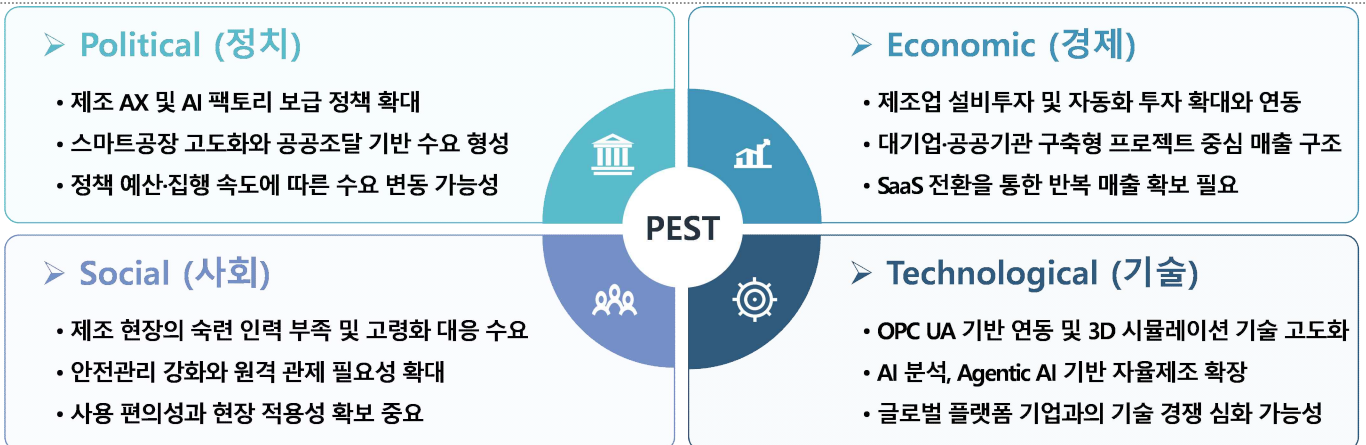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은 제조 AX, AI 팩토리 보급, 스마트공장 고도화, 공공조달 혁신제품 제도 등 정부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결된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산업 데이터 활용, 로봇·물류 자동화, 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가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산업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도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조달 및 공공 프로젝트 경험과 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 기반 실증사업과 공공기관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정책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집행 속도, 사업 연속성에 따라 수요가 변동할 수 있어, 공공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기업 중심의 자생적 수요 확보가 중요하다.

동사의 매출 구조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On-Premise DT 구축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 제조업 설비투자, 자동화 투자, IT 예산 집행,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동차, 이차전지, 에너지 등 전방산업의 생산라인 신설·증설과 해외 공장 구축이 확대될 경우 관련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기 둔화, 고객사 투자 지연, 프로젝트 발주 축소로 인해 수주와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중장기 실적 안정성은 구축형 프로젝트 수주 확대뿐 아니라, 플랫폼을 표준화해 구독형 매출과 유지보수·기능 확장 매출을 늘리는 데 달려 있다.

제조 현장에서 숙련 인력 부족, 작업자 고령화, 안전관리 강화, 원격 운영 필요성 증가가 구조적 변화로 확인된다. 이는 설비와 공정, 로봇, 물류 시스템을 가상공간에서 통합 관제하고, 현장 데이터 기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며, 작업 조건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위험 설비나 대규모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산업에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솔루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동사는 3D 관제, 시뮬레이션, 예지보전, 원격협업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나, 편의성, 교육 부담 완화, 기존 운영 방식과의 연계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현장 도입이 늘 수 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은 OPC UA 기반 이기종 설비 연동, 엣지 데이터 처리, 3D 시뮬레이션, AI 분석, Agentic AI, Physical AI, 로봇 제어 기술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동사는 OCTOPUS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 가상화, 시뮬레이션, AI 분석, 로봇 연동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관련 특허·저작권·인증 기반으로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자동화 장비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고 있어 기술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구축 경험, 국산 플랫폼의 비용·속도 경쟁력, 고객 맞춤 대응력, SaaS 전환 역량을 통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수익성 약화되었으나, 자본 확충으로 재무 기반 보강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은 2023년 39.2억 원, 2024년 52.2억 원, 2025년 35.9억 원으로 변동하였으며, On-Premise DT는 매출 비중 70.8%를 차지하며 핵심 사업으로 유지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이 매출 규모를 상회하면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 2025년 유상증자와 차입금 상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었으나,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결손금이 지속되고 있다.

■ 전체 외형은 축소되었으나, 해외 솔루션 매출은 확대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39.2억 원, 2024년 52.2억 원, 2025년 35.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년대비 매출액은 31.3% 감소하였으며, On-Premise DT 부문 프로젝트 수주 감소 및 대기업 고객사의 투자 지연, 솔루션 부문 라이선스 판매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On-Premise DT] 매출은 2023년 20.5억 원, 2024년 36.5억 원, 2025년 25.4억 원으로 2024년에 크게 확대된 뒤 2025년에 조정되었으나, 2025년 매출 비중은 70.8%로 핵심 사업으로 유지되었다. [솔루션] 매출은 2023년 12.9억 원, 2024년 11.8억 원, 2025년 6.4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SaaS DT]는 2023년 0.5억 원, 2024년 0.6억 원, 2025년 0.9억 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기타]는 2023년 5.3억 원, 2024년 3.3억 원, 2025년 3.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은 2023년 0.5억 원, 2024년 1.2억 원, 2025년 2.2억 원으로 확대되어, 해외 솔루션 공급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매출 구조는 구축형 프로젝트 중심에서 OCTOPUS 기반의 AI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또한 동사는 Agentic AI·Physical AI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SaaS 기반 구독형 플랫폼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매출 회복은 대기업 구축형 프로젝트 재개와 SaaS 매출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개발 투자 부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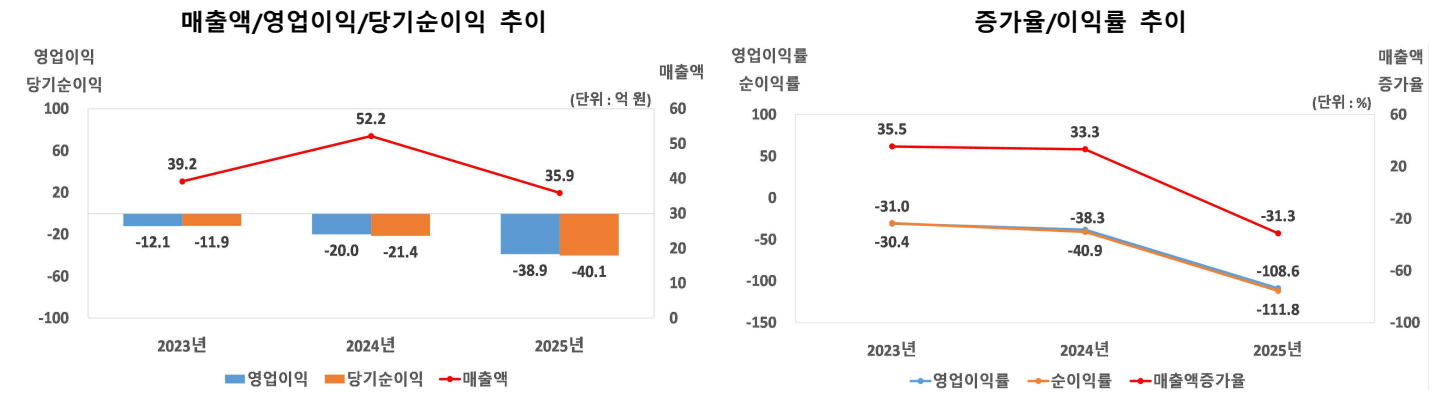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12.1억 원, 2024년 -20.0억 원, 2025년 -38.9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되었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31.0%, -38.3%, -108.6%로 하락하였다. 판관비는 2023년 51.3억 원, 2024년 72.2억 원, 2025년 74.8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판관비율은 2023년 131.0%, 2024년 138.3%, 2025년 208.6%로 높아져, 2025년 외형 축소에도 인력·연구개발·플랫폼 고도화 관련 비용 부담이 유지되며 영업손실 확대의 요인이 되었다. 2025년 기준 판관비 항목 중에서는 외주용역비 22.0억 원, 경상연구개발비 9.7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1.9억 원, 2024년 -21.4억 원, 2025년 -40.1억 원으로 나타났고,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30.4%, -40.9%, -111.8%를 기록하였다. 금융손익·기타손익 등 영업외손익 규모는 크지 않아, 영업손실 확대 영향이 당기순손실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현재 플랫폼 전환과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반영되는 단계에 있어, 수익성 지표는 약화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형 회복과 비용 통제가 병행되어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차입금 상환과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동사의 총자산은 2023년 38.0억 원, 2024년 41.4억 원, 2025년 37.8억 원으로 2024년 증가한 뒤 2025년 감소하였다. 반면 유동자산은 2023년 9.5억 원, 2024년 19.9억 원, 2025년 23.0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동비율도 2023년 32.1%, 2024년 61.1%, 2025년 123.7%로 상승하였다. 총자산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며 단기지급능력은 전년 대비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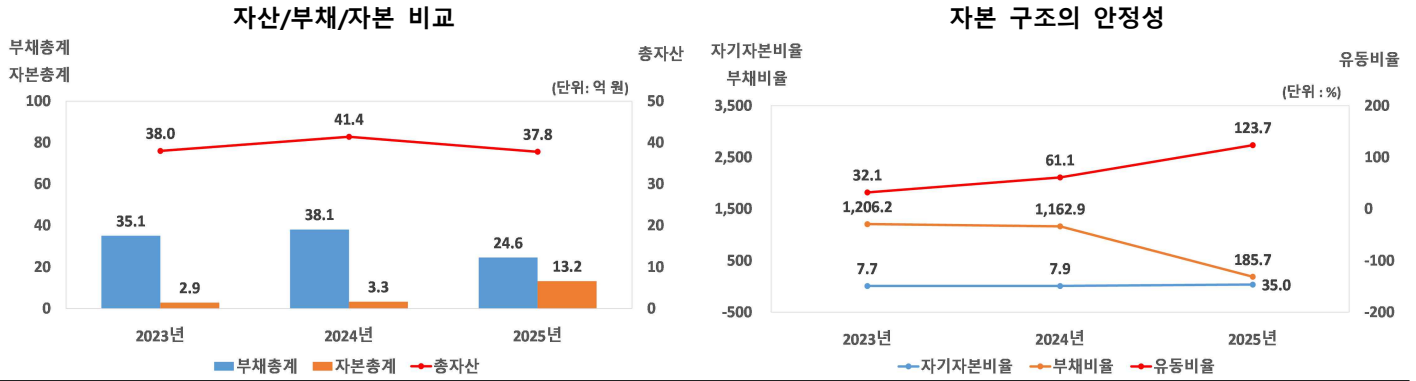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35.1억 원, 2024년 38.1억 원, 2025년 24.6억 원으로 2025년에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06.2%, 2024년 1,162.9%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185.7%로 완화되었다. 또한 유동부채는 2024년 32.6억 원에서 2025년 18.6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차입금 상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본총계는 2023년 2.9억 원, 2024년 3.3억 원, 2025년 13.2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7.7%, 2024년 7.9%, 2025년 35.0%로 개선되었다. 2025년에는 Series A 유상증자를 통해 7월 35.0억 원, 12월 15.0억 원을 유치하면서 50.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결손금 누적이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영업수익성 개선을 통한 결손금 축소와 내부 자본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재무안정성은 수익성 약화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과 차입금 상환을 통해 개선되었다. 동사의 사업 구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인력 기반의 개발비와 판관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 회복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현금창출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 항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39.2 | 52.2 | 35.9 |
| 매출액증가율(%) | 35.5 | 33.3 | -31.3 |
| 영업이익 | -12.1 | -20.0 | -38.9 |
| 영업이익률(%) | -31.0 | -38.3 | -108.6 |
| 순이익 | -11.9 | -21.4 | -40.1 |
| 순이익률(%) | -30.4 | -40.9 | -111.8 |
| 부채총계 | 35.1 | 38.1 | 24.6 |
| 자본총계 | 2.9 | 3.3 | 13.2 |
| 총자산 | 38.0 | 41.4 | 37.8 |
| 유동비율(%) | 32.1 | 61.1 | 123.7 |
| 부채비율(%) | 1,206.2 | 1,162.9 | 185.7 |
| 자기자본비율(%) | 7.7 | 7.9 | 35.0 |
| 영업현금흐름 | -1.2 | -20.5 | -28.5 |
| 투자현금흐름 | -14.1 | - | - |
| 재무현금흐름 | 0.8 | 20.5 | 41.4 |
| 기말현금 | 2.4 | 2.4 | 15.3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On-Premise DT 구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부문별 실적 역시 해당 사업의 수주 규모와 프로젝트 진행률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2023년 39.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4년 On-Premise DT 매출 확대에 힘입어 52.2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주요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 인식 규모가 축소되면서 35.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26년 예상 매출은 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회복이 예상된다.

On-Premise DT는 2023년 20.5억 원에서 2024년에 크게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으나, 2025년 25.4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6년에는 28.0억 원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해당 부문은 제조·물류·에너지 현장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핵심 매출원으로, 대기업 제조라인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확보 여부가 향후 실적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다만 구축형 사업은 고객별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 범위와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단기 실적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다.

솔루션 부문은 2023년 12.9억 원에서 2025년 6.4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8.0억 원으로 일부 회복이 예상된다. 기존 MES, 엣지 장비, 소프트웨어 등 보조 솔루션 매출이 구축형 DT 프로젝트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OCTOPUS 플랫폼의 모듈화가 진전될 경우 솔루션 부문은 보조 매출에서 플랫폼 기능 확장 매출로 전환될 수 있으나, 현재 On-Premise DT 대비 성장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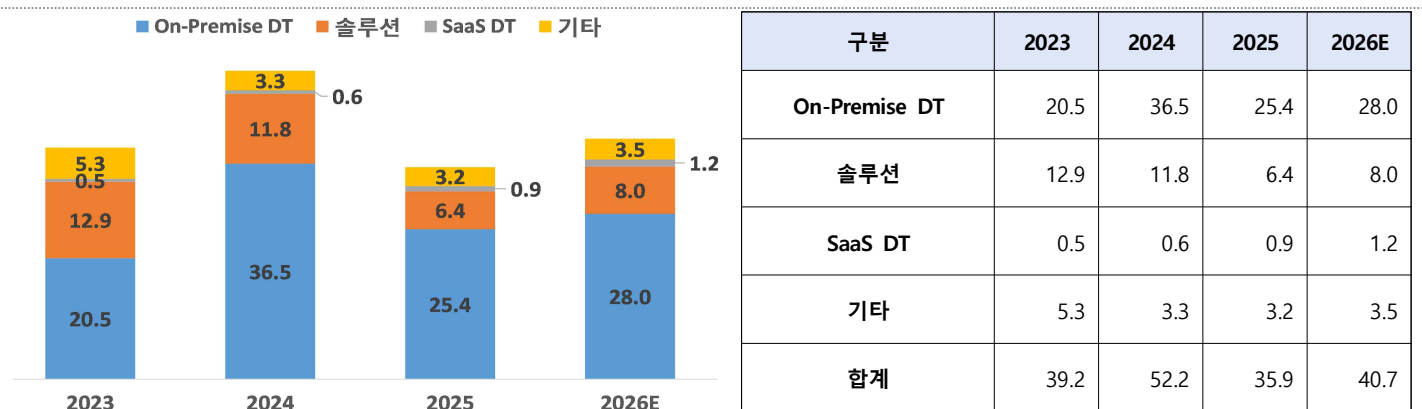
SaaS DT 부문은 2023년 0.5억 원에서 2025년 0.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1.2억 원으로 예상되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구독형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디지털 트윈 도입 수요가 확대될 경우 반복 매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매출 규모가 작아 중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행 사업으로 판단된다.

기타 부문 매출은 2023년 5.3억 원에서 2025년까지 감소한 뒤, 2026년 3.5억 원으로 회복 예상된다. 교육 키트, 산업용 컴퓨터, 장비 등 기타 제품군은 독립적인 성장 사업이라기보다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와 연계된 부가 매출로 해석되고, 고객 점점 확대와 플랫폼 도입 전 단계의 보조 제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실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매출 구조상 On-Premise DT 구축 프로젝트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수주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성장은 레퍼런스 기반으로 신규 구축 프로젝트 확대, OCTOPUS 플랫폼 표준화·모듈화를 통해 솔루션 매출과 SaaS 구독형 매출 비중의 점진적 향상, 반복 매출 구조로 전환하는 속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OCTOPUS 중심의 AI 자율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

동사는 산업 데이터 수집·분석·관제·3D 가상화·시뮬레이션·예지보전·AI 기반 의사결정과 제어를 통합 제공하는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gentic AI, Physical AI, Robot Hub 등 자율제조 관련 기능을 확대하며 제조 AX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복잡한 공정과 설비 운영이 필요한 산업에서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향후 성장성은 OCTOPUS 플랫폼의 모듈화·표준화, SaaS 구독형 모델 안착, 해외 및 중견·중소 제조기업 고객 확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의 가장 큰 변화는 사업 정체성이 기존 제조산업 디지털 트윈 구현 플랫폼 기업에서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I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OCTOPUS를 핵심 플랫폼으로 하여, 산업 데이터의 수집·분석·통합·관제·3D 가상화·시뮬레이션·검증·예지보전에 이르는 전주기를 하나의 AI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AI Twin Company로 사업 방향을 재정의하였다. 이는 동사의 기술 포지셔닝이 단순 디지털 트윈 구축에서 AI 기반 자율제조 실행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해외 진출과 SaaS 전환이 명확한 전략 축으로 부상했다. 동사는 NIPA 디지털 트윈 솔루션 해외 진출 사업과 G-Next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OCTOPUS 플랫폼의 해외 공급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공장 구축 실적을 신규 해외 고객 확보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On-Premise 구축형 사업에서 1차 협력사 대상 통합 플랫폼 공급,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안정적·반복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기존 CPS 및 OPC UA 기반 기술 포트폴리오 위에 원격협업, 이기종 장비 연동, 산업용 5G 단말 연동 등 산업 현장 연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자산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사의 기술 축이 설비 데이터 수집과 가상화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협업·엣지 연결·AI 분석·자율제어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플랫폼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FLEXING 계열 자산과 신규 OCTOPUS 브랜드 및 솔루션 체계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과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사업 방향은 OCTOPUS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자율제조 솔루션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설비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를 넘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상태를 예측하고 운영 판단을 자동화하는 제조 AX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단순한 3D 관제 시스템이 아니라 AI 분석, 시뮬레이션, 로봇 제어, 예지보전, 원격협업을 결합한 운영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OCTOPUS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뮬레이션, AI Hub, Agentic AI, Physical AI 기능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 환경도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이다. 국내에서는 제조 AX, AI 팩토리, 스마트공장 고도화, 산업 데이터 활용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조달 및 실증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 도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동사는 공공기관 프로젝트 경험과 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 기반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 수요만으로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 제조기업과 협력사 시장에서 반복 가능한 플랫폼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 성장의 핵심 변수는 구축형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경험을 표준화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있다. 현재 동사의 경쟁력은 고객 현장 맞춤형 디지털 트윈 구축 경험과 OPC UA 기반 설비 연동 기술에 있으나, 프로젝트형 사업은 고객별 요구사항과 납품 일정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는 OCTOPUS의 각 기능을 모듈화하고, 산업별 표준 패키지를 구축하며, SaaS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속도가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본력, 글로벌 고객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플랫폼 확장성이 큰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자동화 장비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반면 동사는 국내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도, 고객 맞춤형 구축 경험,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력, 국산 플랫폼의 비용·운영 측면 차별화를 기반으로 특정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산업별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이를 중견·중소 제조기업용 표준 플랫폼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사의 향후 성장성은 OCTOPUS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 Agentic AI 및 Physical AI 기능의 실제 산업 적용, 해외 시장 레퍼런스 확대, SaaS 구독형 모델의 안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객 맞춤형 개발 부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 고급 개발인력 확보, 플랫폼 표준화 지연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판단된다.

유비씨(495810)

증권사 투자의견

| 작성기관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 작성일 |
|------|-------|------|-----|
| N/A | - |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6.1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 기업명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
| 유비씨 | X | X | X |